



17일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으로 통합된 지 1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두 계파간 유기적 결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 1년 민주 '아직도 두가족'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지붕 두가족'.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으로 통합된 지 17일로 1주년을 맞았으나 아직 화학적 결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된 통합민주당과 구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분당된 지 4년 5개월만인 지난 해 2월17일 거듭된 이합집산 끝에 '재결합' 했다.

광주·전남 우리계 국회의원에 민주계 단체장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싸고 계파 갈등 가능성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7·6 전당 대회에서 정세균 대표에게 당 지휘권을 넘기기 전까지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됐으며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정을 놓고 양 계파 간 나뉘먹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공천과 총선 과정에서 구 민주계 출신 인사들이 거의 전멸하면서 구 민주당의 당내 세력화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박상천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고흥·보성, 광주 동구에서 당선되고 비례대표를 통해 김충조, 안규백, 김유정 의원 등이 원내에 진출하는 등 구 민주계도 나름대로 명맥은 유지했으나 당내 역학구도에서 밀리면서 사실상 소수계파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구 민주계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동료들이 통합 과정에서 박상천 대표의 구 민주계를 외면하면서 사실상 존립 기반을 잃었다는 것이다. 한편, 정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우세한 당내 역학구도를 바탕으로 내부 화합에 주력했으나 취약한 위기관리 능력과 여대야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구 민주계 등 비주류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지난 연말 소위 'MB 약법' 저지를 위한 본회의장 점거 농성 과정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정세균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주류와 구 민주계 등 비주류와의 거리감이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내의 유기적인 화합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당장 광주·전남 등 바닥 조직은 '한지붕, 두가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구 민주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내부적 갈등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구 민주계와 구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 민주계가 광주·전남지역을 사실상 석권하고 전북지역을 상당부분 잠식한데 반해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당장 광주에서는 열린우리당

출신의 김동철, 강기정, 김재균, 조영택 의원이 원내에 진출했고 전남에서는 김성근, 주승용, 서갑원, 유선호 의원 등이 당선됐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구 민주계와 구 열린우리계의 치열한 내부 암투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구 열린우리당 출신 일부 인사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난 구 민주당 출신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구 민주계 출신의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일부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구에서는 구 민주계 출신 지방의원과 과거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들의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구 열린우리계와 구 민주계 인사들의 치열한 공천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몽준 '차기' 낙점 받았나

추 대통령과 청와대 단독 회동 친이계 모임 참석 등 행보 활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동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부터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을 열었다. 또 아산정책연구원을 한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 확장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꾸준히 해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당내에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추측은 정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로 친이(친 이명박) 진영의 '히든 카드'로 낙점을 받을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내에 기반이 없지만 대중적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친이계의 지원을 받을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경쟁자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최고위원이 지난 8일 당내 친이계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친이 진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이계 내부에서도 정 최고위원을 높게 평가하는 의원들이 상당하다. 친이계 핵심 의원은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정 최고위원만큼 표가 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며 "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 최고위원이 친이계 내부 경쟁자를 제치고 '포스트 이명박'으로 우뚝 설 수 있는지는, 이제 오 전 최고위원, 김문수 경기지사, 정두언 의원 등이 현재 친이계에서 거론되는 경쟁자들.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진 인사들이다. 더욱이 정 최고위원은 "아직도 정치를 잘 모르고 인건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별로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종종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독대로 당내 위치가 급격히 상승한 정 최고위원이 각종 난관을 헤치고 명실상부한 대권주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는 결국 본인이 친이계에 어떻게 안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역경제권 5+3으로 재조정하라"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정부에 강력 촉구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7일 모임을 갖고 '5+2 광역경제권'을 '5+3 광역경제권'으로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난 50년간의 지역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이제 겨우 균형과 상생 발전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있는 만큼 현행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또 "정부가 굳이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기존 '5+2 광역경제권'에서 새만금 특구를 포함, '5+3 광역경제권'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구분의 기준으로 제시한 '인구'라는 잣대는 지난 60년 동안 불균형 발전 결과"라며 "지난 1949년에는 호남권 인구가 509만명(25.2%), 영남권 인구가 634만명(31.4%)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07년

인구는 호남권이 502만명(10.4%)으로 오히려 7만명이 감소한 반면 영남권은 1천283만명(26.5%)으로 2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즉, 재편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영남에 2개, 호남에 1개의 광역경제권을 설정하는 것은 '영남 편중-호남 낙후'라는 불균형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법적 장치가 된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최소한 5+3 광역경제권"으로 권역이 재조정되지 않는 한 정부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며, 이를 당 지도부에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금원 회장 돈 수익 안희정에 건네

추부길씨 親與 성향 인터넷신문 창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심유 회장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17일 강 회장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회삿돈 수익원을 수시로 건넨 흔적을 발견, 이 돈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계좌추적을 통해 강 회장이 2005년 안위원의 추징금 납부를 위해 빌려줬다는 1억원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익원을 안 위원에게 송금했으며 이 돈은 강 회장 소유인 충북 충주 S골프장의 공금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목표 출신의 '대운하 전도사'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16일 친여 성향의 인터넷신문 '아우어뉴스'를 창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우어뉴스'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간식을 갖고 공식 뉴스서비스를 시작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창간 축하연에는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필두로 전여유·정병국·장광근·김기현·조해진·권택기 의원, 이만희 환경부장관,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청와대에서선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과 정응화 연설기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산행안내 14면게재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입·모임·매일·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 (062)227-9600
· FAX: (062)227-9500

정정 공고

본보 2월17일자 제111호 오영희씨 한경승인공고 중 연락처 근화배야지 104-207를 104동 711호로 정정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공고인 오영희

한정승인공고

당 정세균 (330106-1852617) 산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8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물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나16
공고인: 정대영, 정지영, 정순숙, 정미혜
한정승인수리일: 2009. 1. 9
공고기간: 2009. 2. 18~2009. 4. 17
연락처: 정기도 광주시 회덕동 441 대우파크빌 101-1202
정대영 (011-785-6090)

건설면허

▶ 건설업 양도 양수
▶ 건설업 구조조정(분할 / 합병)
▶ 신규취득 / 기업진단

부성 M & A ☎02)773-5690~1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각반 50명 선착순
※ 지열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및 학생, 내성적인 사람

3. 강의요일 및 시간
· 주간(매주 화요일) 14:00~16:00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4. 교육기간: 2009년 3월 9일 ~ 6월 28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 (실습70%, 이론30%)

5.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지도 요령, 각종 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6. 원서교부및등록기간
· 등록기간: 2009년 2월 9일(월) ~ 3월 6일(금)
· 등록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심관4층)

7. 등록방법(수강료:150,000원)
· 직접명문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22-158135 (예금주: 광주대 평생교육원)

8. 수료 후 특전: 수료증수여(총장명인),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수여, 각종선거연설문 파견,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추천

9. 담당교수: 한 상택
- 한국응변연설인종양회 회장
- 제 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대통령실 전국응변연설대회 대회본부장
- 각종 스피치기능성대회 심사위원장
- 기초광역의원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30년)
- 시민법인 한국응변연설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응변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8기)

구분	일정
·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09. 3. 6(금) 09:10 오후반 2009. 3. 6(금) 13:40 토요일 오전반 2009. 3. 7(토) 09:10 오후반 2009. 3. 7(토) 13:40
· 모집기간	2009. 1. 29(목) ~ 2009. 3. 7(토)
· 수업기간	2009. 3. 6(금) ~ 2009. 8. 29(토) (6개월 / 24주)
· 수강료	₩298,000

· 모집인원: 1단계 금요일/토요일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20명
· 수업시간: (매주 금, 토) 오전반 9:10~13:00 오후반 13:40~17:30
· 수료후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부속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2단계 수료시)
- 각 원문대학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특기적성 병과 후 교육) 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 화: (062)950-3584, 3585, · H·P: 011-614-4160
· 광주은행: 148-107-307803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2기)

구분	일정
·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09. 3. 9(월) 9:10 오후반 2009. 3. 9(월) 13:4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09. 1. 29(목) ~ 2009. 3. 9(월)
· 수업기간	2009. 3. 9(월) ~ 2009. 8. 17(월) (6개월 / 24주)
· 수강료	₩300,000

· 모집인원: 1단계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25명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반 9:10~13:00 오후반 13:40~17:30
· 수료후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각 원문대학 및 학원개설 및 감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 병과 후 교육) 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화 (062)530-3873~5 · H·P 016-611-1171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